

〈면앙정가〉와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가사 창작의 실제

백숙아*

차 례

1. 들어가며
2. 〈면앙정가〉에 나타난 감성 발현의 양상
3. 〈면앙정가〉와 감성 커뮤니케이션
4. 가사 창작의 실제
5. 나오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면앙정가〉화자의 감성 발현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이다. 시인의 상상력으로 표현되는 〈면앙정가〉화자의 감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감성에 동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모방 가사를 써본 후, 새로운 가사 창작 이론으로 이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에서 〈면앙정가〉 전반부인 ‘물(物)’에의 감성적 완상과 후반부의 ‘아(我)’의 감성적 흥취를 노래한 점에 덧붙여 ‘아我’의 감성적 자각에 주목하였다. 즉 〈면앙정가〉는 ‘물(物)’과 ‘아(我)’를 노래한 것으로 ‘물(物)’과 ‘아(我)’의 감성적 작용을 살핀 것이다. 따라서 시인이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수반하는 모든 성질의 상위 개념인 감성 발현을 화자를 통해 살핀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작가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화자와의 대화를 통해 작품에 드러난 감성 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시인의 감성을 파악하고 시인의 입장이 되어 〈면앙정가〉를 랩 음악에 맞춰 노래하게 했다. 가사를 감성으로 접촉하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단계로, 기존 가사를 노래해보는 시도에서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첫걸

*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 위원

음을 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에 맞춰 가사 작품을 노래해보는 과정은 문학작품과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사 문학과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기 위해 <면양정가>화자의 감성 발현과 가사 창작 이론에 대한 논의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면양정가, 감성, 소통, 물아일치(物我一致), 랩, 노래.

1. 들어가며

<면양정가>는 송순(1493~1583)의 유일한 가사작품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괄목한 만한 양의 논의가 축적되었다. 특히 <면양정가>의 감성적 특징 및 가사 창작과 계승에 대하여는 최한선에 의해 그 기반이 구축되었다.¹⁾ 그러나 문학작품과 독자와의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시인의 감각적인 상상력으로 발현된 <면양정가> 화자의 감성 발현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과 독자와의 감성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사 창작 단계에까지 이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면양정가>를 살펴보면 광활한 우주를 통하여 시인의 달인대관적(達人大概的) 감정을 맘껏 펼치고 있다. 화자는 현실에서 철저히 자유롭지 못했던 심경을 토로하듯 자기만의 광활한 우주를 만들어 창공을 활기차게 유영하듯 노래했다. 담대하고도 자유로운 작가의 감성적 유희라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을 감상하면서 화자의 감성과 커뮤니케이션을 체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독자들은 자신도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문학작품을 통해 정신적인 위안, 흥분, 사랑, 희망, 대리 만족 등을 체험하는 수준에서 만족

1) 최한선, 「고등래퍼와 현대가사」, 『오늘의 가사문학』 제17호, 고요아침, 2018; 「가사란 무엇인가-면양정가」, 『오늘의 가사문학』 제4호, 고요아침, 2015; 「가사문학 창작과 계승」, 『오늘의 가사문학』 제2호, 고요아침, 2014.

하게 된다. 이 논의에서는 학습자들이 <면앙정가>를 감상하고 시적 화자의 감성 발현을 통한 상상력으로 창작의 실제 단계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면앙정가>에 나타난 감성 발현의 양상

감성이란 ‘어떠한 자극이나 그 자극의 변화를 인식하는 성질·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지각과 감정을 수반하는 능력’, ‘이성 또는 오성(悟性)²⁾과 함께 인간의 인식능력’을 말한다.³⁾ 또한 감정이든 정서든 그 어떤 것이든 막론하여 인간의 마음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마음 속의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모든 행위 또는 표현 등등을 아울러 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를 다시 정립해보면 ‘감성(感性)=느낌(깨달음·감각)+성질(감정·이성·오성)’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 곧 감성은 하나의 독립된 매개로 정의하기란 힘들므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성질의 상위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⁵⁾ 이러한 감성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감성이 <면앙정가>화자에 의해 발현되는 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사람의 다섯 가지 성정(性情). 기쁨·노여움·욕심·두려움·근심을 이른다.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상), 두산동아, 1999, 136쪽.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감성은 수동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한 유한성을 나타내는 반면, 인간과 세계를 잇는 원초적 유대로서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영역을 열어 주는 역할, 즉, 이론적 인식에서는 이성적 사고를 위한 감각적 소재를 제공하고, 실천적·도덕적 생활에서는 이성의 지배와 통솔을 받을 감정적 소지(素地)를 마련하며, 미적(美的) 인식에서는 자신의 순수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인간적 생의 상징적 징표(徵表)가 된다.

4) 조태성, 『감성의 발현과 그 방식, 과정 혹은 스펙트럼』, 『감성연구』 1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0, 37쪽.

5) 백숙아, 「어촌 심연광 한시의 감성적 특징과 효과」, 『동아인문학』 第45輯, 동아인문학회, 2018, 55쪽.

문학작품의 내외적인 형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자가 존재했던 시간과 공간, 문학규범과 전통, 상상력으로 특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면앙정가>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노래하되 전반부는 ‘물(物)의 관점’, 후반부는 ‘아(我)의 관점’에 비중을 두고 구조화된 것이다.⁶⁾ 강호자연인 ‘물(物)’과 현실을 직시하는 ‘아(我)’를 ‘사물의 조화로움’과 ‘자아의 흥취’로 논의한 것이다. 첫 구절부터 ‘蘆花을 사이 두고 우리곰 좃니논뇨’까지를 ‘물(物)의 관점’으로, ‘너른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리’부터 마지막 구까지를 ‘아(我)의 관점’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때 ‘아(我)’는 ‘자아의 흥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자각(自覺)’으로 끝난다는 점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이 장에서는<면앙정가>시적 화자의 감성 발현 양상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물(物)’의 감성적 완상

조선시대 사대부에게 현실이란 정치세계이다. 그곳을 벗어나 강호자연 가운데 위치한 면앙정은 조선의 사대부인 송순에게 삶의 장이요, 창작의 산실이었다. 송순은 자신의 정자인 면앙정 주변 정취를 읊으면서 범상하고도 장황한 시적 감흥을 마음껏 펼쳤다. 시인의 열린 마인드와 진취적인 성향이 돋보이는 면이기도 하다.

먼저 <면앙정가>첫 구절 ‘無等山 흔 활기 뵈히 東다히로 버더이셔’부터 ‘蘆花을 사이 두고 우리곰 좃니논뇨’까지는 ‘물(物)’의 감성적 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물(物)에 대한 시적 화자의 무한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이른바 감성 발현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숨이 차서 다 읊조릴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것은 물(物)에 대한 화자의 감성적 시각의 발현이다. 무등산 줄기가 이어와 제월봉이 되었고 일곱 구비가 벌여 놓은 듯 움쳐진 아래에 정자를 세웠다. 그 정자에 서서 풍광

6)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고시가연구』 제4집, 한국고시개문학회, 1997, 64쪽.

을 즐기는 시인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구름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려고 마치 두 날개를 펼친 것 같은 정자 주변 정취를 그림처럼 묘사하였다.

화자의 감성 이입이 도드라지는 부분은 ‘가온디 구비는 굵기 든 늘근 농이 선잠을 꺾 짜야 머리를 언쳐시니’이다. 산봉우리의 굽은 모양을 보고 늙은 용이 선잠을 막 깨고는 머리를 치켜드는 형세로 묘사했다.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시인의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한 상상력이 극에 달했을 때 작용되는 감성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내려와 정자 앞 들판을 지나 흐르는 물은 어디로 가느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빠 흘러간다. 기러기는 갈대꽃 사이로 무엇을 노리는 듯 울음 울며 바빠 오간다. 흐르는 물의 변화와 오가는 기러기의 움직임을 농칠새라 시인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다. 물(物)을 대하는 시적 화자는 애절한 사랑살이에 애간장이 녹듯 한 감성 발현을 자아낸다.

특히 ‘雙龍이 뒤틀는 듯 긴 깃을 치뿜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라는 부분에서 시인의 감성은 절정을 향해 치닫는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물길을 보고 쌍룡이 뒤틀는 모양, 비단을 펼쳐 놓은 모양 등으로 표현했다. 물을 용의 꿈틀거림으로 표현하여 생명력을 불어넣고, 길게 펼쳐놓은 비단으로 표현하여 시각·촉각 등의 감각을 자극하여 문학미를 살린 것이다.

늙은 용, 송죽, 청학, 쌍용, 비단, 모래, 기러기, 갈대 등은 면앙정 풍광과 정취를 완상하면서 시인의 정감 있는 감성으로 발견한 시적 매개물이다. 마치 한 폭의 병풍에 펼쳐진 그림을 연상하듯 시인의 풍부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언어들의 유희, 시인의 감성이 이끈 언어들의 동화, 시인의 감성이 어우러진 물아일체의 결정체로서 <면앙정가>화자의 감성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2. ‘아(我)’의 감성적 흥취

‘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부터 ‘乾坤도 가움열샤 간 디마다 경이로다’까지를 ‘아(我)’의 감성적 흥취로 보았다.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면서 자연과 자아의 합일을 ‘아(我)’의 감성적 흥으로 표출하였다. 눈앞에 펼쳐진 자연

의 광활함과 무한한 아름다움을 ‘끝없이 넓은 들에 무슨 생각하느라고 일곱 굽이 한데 머음쳐서 무더기무더기 벌여 놓은 듯’이라며 드넓은 광야를 흥겹게 노래했다. 인간과 자연이 마치 하나 되어 하늘을 날고 공기를 마시고 땅을 달리듯 활기찬 기운으로 숨 가쁘게 추월산 머리를 넘는다.

시인은 龍龜山(용구산), 夢仙山(몽선상), 佛臺山(불대산), 魚登山(어등산), 湧珍山(용진산), 金城山(금성산) 등의 산봉우리들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정자에 앉아 있다. 시적 화자는 산을 넘어 면양정에서 내려다보이는 원근창예를 감상한다. ‘아(我)’의 흥에 의한 감성 발현은 하늘도 무서워 않고 우뚝 서있는 산맥들을 흰구름과 아지랑이 뒤로 밀어낸다. 아름다운 자연이 시인의 감성에 이입되어 흥겨운 필치로 이어졌다. ‘넓은 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랴’라는 부분에서 시인은 정자를 완성한 기쁨과 그 정자에 올라 감상한 주변 풍광을 읊었다. 마치 청학이 구름을 타고 나는 형국으로 묘사되어 ‘아(我)’의 감성적 흥취는 절정에 달한다. 이제 ‘아(我)’의 감성적 흥취는 넓은 들을 지나 모래톱이 눈처럼 빛나는 물가로 흐르고 하늘 아래 둘러있는 병풍 같은 추월산을 넘어 용구산 금성산으로 치닫는다.

흰 구름, 석양, 가랑비 등을 바라보며 ‘아(我)’의 서정적 감성이 요동친다. 안개와 아지랑이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처럼 오르내린다. ‘광야를 건너가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석양과 섞이어 가랑비조차 뿌리는구나’라며 면양정에 올라서서 멀리 석양을 완상한다. 축축이 내리는 가랑비는 ‘아(我)’의 오관을 자극하여 주체하기 어려운 정도의 감성을 자극한다. 이는 광야를 치달아와 눈앞에 펼쳐진 풍광까지 거침없이 토해내는 ‘아(我)’의 흥겨운 감성 표출이다. 시적 화자의 흥에 겨운 감성 표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시적 화자는 남여를 타고 오가며 마음이 더 분주해졌다. 녹음이 우거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산 빛은 비단 위에 수를 놓은 듯하고, 황혼도 끝없이 펼쳐져 있고, 어적도 흥에 겨워 노랗 부를 정도이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류는 시적 화자의 감성 발현으로 신까지 동원하였다. 때는 겨울이라 초록이 강산에 묻히고 조물주는

얼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을 들여놓아 금상첨화의 광활한 우주를 들여놓았다. 하늘과 땅 위에 이만한 풍광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꿈같은 정자 주변 풍광은 시적 화자의 감성적 흥취에 의해 드넓게 표출되었다.

2.3. ‘아(我)’의 감성적 자각

자각(自覺)이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능력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⁷⁾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아의 흥이 아무리 절정에 달하더라도 인간은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아(我)의 감성적 자각은 ‘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부터 마지막 ‘이 몸이 이렇금도 亦君恩이샅다’까지이다. ‘아(我)’의 감성은 자연과 인간과의 합일을 꾀한다. 결국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조선의 사대부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광활한 자연의 흥취와 화자의 행복한 흥취에 이은 자각으로의 여운을 감성적으로 노래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도 듣고 싶고 저것도 듣고 싶고, 바람도 쐬려하고 달도 맞으려하는 욕망 가득한 하루이다. 하루하루가 바쁜 일상이지만 노래 부르고 악기를 타며 흥을 재촉하는 사대부이다.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바빠서 잠시도 여유가 없는 시적 화자의 내면에 깊은 여운이 깔려있다. 곧 정치생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시적 화자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사대부 입장에서 강호자연을 통하여 애써 현실을 외면하려는 심증을 읊고 있다.

밤 줍기, 고기 낚기, 사립문 닫기, 꽃잎 쓸기 등도 할 여유가 없을 만큼 강호 자연 즐기기에 여념이 없다. 바람을 쐬고 달맞이도 하고 이것저것 다 봐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부족하다. 그러나 쉴 사이 없이 바빠 다니느라 청려장이 무디어져 간다는 시적 화자의 표현에서 웬지 외롭고 쓸쓸한 감성이 묻어난다.

시적 화자는 강호자연에 묻혀 살겠노라며 정자를 앉혀놓고 자연을 완상한다. 때때로 시를 읊조리며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흥에 취하여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하), 두산동아, 1999, 5086쪽.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강산풍월을 다 누리니 이태백도 부럽지 않은 시인이다. 그러나 이 행복 역시 임금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시상을 이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시인이 제아무리 아름다운 풍류를 누리며 살아갈지라도 현실을 떠날 수는 없다. 인간과 자연, 번로와 지팡이, 술과 벗, 흥취와 근심, 태평성대와 신선, 강산풍월과 내 평생, 끝없는 회포와 임금의 은혜 등에서 ‘아我’의 감성적 자각이 여실히 드러난다. 자연과 인간과의 합일 지점에 시인이 외면할 수 없는 사대부가 서 있다. 이 작품에서 현실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대부의 번민과 아름다운 풍광, 즉 조화로운 물아일체의 승화에 대한 갈망이야말로 정치현실을 떠날 수 없는 ‘아(我)’의 감성적 자각인 것이다.

<면앙정가>의 시적 화자는 소박한듯하면서 과감한 감성 표출과 정겨움이 묻어나는 자신감을 표출했다. 우리말로 남도의 풍광을 마음껏 노래하고 자신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면앙정가>의 문학성이 돋보이는 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적 화자의 감성 발현 양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해내는 노력이야말로 후학들이 개진해 나가야할 과제일 것이다.

3. <면앙정가>와 감성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작가와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하여 작가의 감성을 유추하게 된다.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 이는 시적 화자와의 대화 중에 겪게 되는 내적 갈등 해소, 카타르시스를 통한 심신 치유, 사회와 현상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용서, 자아 성찰과 자각 등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을 넘어 작가의 감성을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상상하면서 창작의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이 모든 상호작용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창작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종의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 먼저

기존 가사를 최근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랩 음악에 맞추어 노래로 불러보게 하는 것도 좋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가사를 감성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노래로 불러보는 것이야말로 문학 작품과 지역민의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첫 단추를 꿰는 일이다. 하필 왜 가사를 랩 음악에 맞춰 노래하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가사 작품을 노래로 불러보았을 때 요즘 유행하는 랩 음악만큼 잘 융합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 이유는 랩 가사 형식이 4음보 4음량의 가사 형식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순이의 ‘이토록 아름다웠음을’, 양희은의 ‘가을 아침’, 박인수·이동원의 ‘향수’ 등의 노랫말을 이용할 수도 있다.⁸⁾ 이 노랫말들은 4음보 4음량 구조를 갖추고 있어 가사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가사의 이론과 창작 방법에 대하여 습득한 후에 면앙정을 답사한다. 현지에서 <면앙정가>를 돌아가면서 읊고 작품성과 작가에 대해 숙지한다. 물론 여건이 되지 않을 때에는 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면앙정가>를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노래하면서 작품에 내포된 화자의 감성을 유추해보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친 후 모방 가사를 써보도록 한다.

이때 <면앙정가>가 장편이란 점을 고려하여 작품의 일정 부분들을 지우고 공백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어느 한 부분을 잘라내어 그 부분을 채워 넣는 방법도 효율적인 모방 창작법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모방 창작 방법을 습득한 학생이 빈 공간을 채워 완성한 <면앙정가> 모방작이다.

무등산 높은 줄기 우리 학교로 뻗어 있어
멀리 담양이랑 창평을 감싸고
끝없이 넓은 들에 무슨 일로 모두 나와
모조리 양팔 벌리고 떼거지로 물려있나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다람쥐가

8) 조아라, 「강호가사 <면앙정가> 교육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18쪽.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처박을 듯
 넓은 바위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신선처럼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 벌린 듯
담양이랑 창평을 덮고 있는 구름들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몽게몽게 피어있어
 넓거든 앉지나 말고 푸르거든 서지나 말지
 쌍룡이 뒤흔는 듯 산돼지가 휘젓듯이
 어디로 가느라고 그리 빨리 달아날까
 달리는 듯 뛰는 듯 이리저리 쏘다니듯
 물을 따라 정신없이 마구마구 다니냐고
우리 담임선생님은 무엇을 노리려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어쩔 줄을 모르고
우리들은 틈만 나면 오락하느라 정신없고

학생들은 생각보다 재미있게 빈 칸을 메워가며 모방가사를 완성한다. 이렇듯 가사를 창작하기 전에 <면앙정가> 모방 가사를 완성하고 나면 학습자들은 가사 창작 수업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면앙정가> 화자의 감성 추이와 4음보 4음량 45행 이상의 가사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모방 가사를 써보는 과정이야말로 가사 창작 활동에 가장 필요한 선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의 가사 작품을 모방하여 창작해보고, 자신이 창작한 가사 작품을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노래로 불러보는 일이야말로 문학작품과 감성 커뮤니케이션 교수-학습 과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4. 가사 창작의 실제

우리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개별 감성의 추이에 따라 다양한 상

상력 작용을 체감할 수 있다. 이는 개성 있는 문학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몇 해 전부터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사 창작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사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하여 가사의 음보와 음량, 운율과 율격, 전개 방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창작 수업에 임한 학습자들은 도입부에서부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듯 했다. 창작에 앞서 충분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파악했다.

다음 수업 때부터 위에서 <면양정가>모방 가사 쓰기 수업을 진행하였고 모방가사를 노래로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습자들은 두 가지 수업 모두 거부감 없이 흥미를 갖고 참여했다. 학습자 대부분의 호응도를 보았을 때 감성 지수가 높아졌다는 점이 파악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창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이 수업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즉 모방 가사 쓰기는 가사 창작을 위한 자양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가사 창작의 실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4.1. 연상하기

창작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착안이다.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처음부터 문장을 완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작의 첫 단계에서는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 연상하는 단어의 수가 차이날 수 있다. 단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 단계가 용이할 수 있겠으나 장단점은 있다. 단어의 수가 많으면 주제 선정하는 데 산만함을 초래할 수 있으나 다양한 감성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반면에 단어 수가 적을 경우에는 보다 정제된 주제를 착안할 수는 있겠지만 주제 선정이나 감성 작용이 단조로울 수 있다.

이때 억지로 꿰어 맞추기식으로 단어를 적어서는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그저 떠오르는 단어를 낙서하듯이 자연스럽게 적어 보는 것이다. 단어를 모으는 단계부터 다양한 감성 작용을 체감하게 된다.

주제1. 담양 풍류 노래

푸른 소나무 열매 노루 용천산 옥천산 쇄똥 쇄똥구리 독수리 개울 매미 강물
정자 푸른 산 봄날 새싹 희망 시간 나무 산꼭대기 동물식물 신선 푸른 대나무 사
냥꾼 생명 나뭇잎 벼 추수 아카시아 어린 어린이 풍류 가을 낙엽 감성 벼 곤충
연못 무릉도원 하늘 노란나비 매미 농부

주제2. 난 좋아 난 싫어

게임 학교 친구 집 라면 콜라 강아지 생선 돌고래 브로콜리 피자 토핑 독수리
금요일 사이타 냄새 잠자기 매미 스트레스 고양이 개구기 치킨 미술시간 미술쌤
감오징어 홍어 냄새 인강이 시계 청소 치즈 수업 택배 나 고민

이렇게 자신이 가사 창작을 위해 떠올린 단어들을 적어보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마저도 어려워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이 평소 좋아하는 단어들이나 싫어하는 단어들을 떠올려보도록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미리 주어진 주제로 창작에 임할 때보다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창작에 접근하는 방법이 더 낫설 수 있다.

4.2. 다발 짓기

연상하기 단계에서 모아진 단어들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다발 짓기’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연결되는 단어들을 다발로 묶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비슷한 주제의 말 묶음을 만든다. 그물망 만들거나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사용하면 용이하다.

주제1. 담양 풍류 노래

①봄 - 푸른 소나무 하늘 노란나비 새싹 희망 시간 정자 사람 동물 식물 땅 하늘 신선 유희 봄

②여름 - 푸른 소나무 푸른 대숲 조화 쇄똥 쇄똥구리 독수리 개울가 해엄 개구리 용천산 옥천산 수렴꾼 물줄기 연못 정자 강물 농부 매미 곤충 감성

③가을 - 청량한 감성 낙엽 시 황금빛 추수 농부 생명 나뭇잎 아이 어린 황금들녘

④겨울 - 고난 아카시아 눈 어린아이 어른 농민 소나무 정자 풍류

주제2. 난 좋아 난 싫어

①게임 좋아 - 독수리 금요일 돌고래 스트레스 고민

②학교 좋아 - 친구 인강이 미술시간 미술쌤 금요일 수요일

③학교 싫어 - 청소 책가방 쓰레기 월요일 수학시간 도덕쌤 위엄

④집 좋아 - 잠자기 게임 택배 에어컨 핸드폰 선풍기 엄마 음식

⑤좋아하는 음식 - 순대 떡볶이 오뎅국 햄버거 브로콜리 갑오징어 치즈라면
콜라 피자 토핑 사이다 치킨 갑오징어 족발

⑥동물 좋아 - 고양이

⑦동물 싫어 - 개구리 매미 강아지

⑧싫어하는 음식 - 홍어 냄새 시계 청소 집 택배 생선

⑨집 싫어 - 아버지 위엄

비슷한 내용의 단어들을 다발로 묶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개별 경험이나 지적 능력에 따라 다양한 감성추이를 나타낸다. 이 단계는 개인의 경험이나 상상력에서 얻어지는 희로애오락(喜怒哀惡樂)의 감정 집합소라고 할 수 있다.

4.3. 가사 창작

이 절에서는 전 단계에서 모아진 자료들을 토대로 가사의 율격에 맞추어 창작에 임하도록 한다. 창작에 들어가기 전에 가사의 정체성은 작자가 의도하는 메시지(화젯거리)를 4음 4음보의 운율을 가진 연속체를 통하여, 다정하고 자상하게 표현하는 서술시라는 점⁹⁾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개별 경험과 감성이 총동원된다. 한 줄씩 이야기처럼 엮어가되 4음보 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리고 45행 이상 기승전결 이야기 구조를 갖춰야하며 다섯 마디 이상의 화형을 구성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 해야 한다. 한 줄씩 내용이 늘어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갈등하고 번민하는 동안 작용되는 다양한 감성 발현

9) 최한선, 「가사문학 창작과 계승」, 『오늘의 가사문학』, 2014, 7쪽.

을 통하여 한 편의 가사가 탄생한다. 다음은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토대로 하여 중학생이 완성한 주제1의 가사 작품이다.

주제1 담양 풍류 노래

푸른 소나무 한 그루가 우직하게 뻗어 나와
한 그루 모이고 두 그루 모여 푸른 산이 되고
하늘 뚫은 산봉우리 추운 겨울 걷어내고
따뜻한 봄날 푸르른 새싹들 피어내고
두 개의 잎들이 꿈틀꿈틀 돌아나고
그 위의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작디작은 새싹이 느리게 자라나
메마르고 갈라진 땅 희망이 되고
시간이 지나 나무들은 정자의 나무 되고
상봉우리 모인 곳에 정자 세웠네
사람들은 동물식물 부리며 풍류를 즐기고
푸른 나무 향기로운 꽃 조화로운 향연에
쇠똥모여 굴러다니던 쇠똥구리가 춤추고
하늘 지배하는 독수리조차 노래를 부르며
개울가에 헤엄치던 개구리는 화음을 내고
열매 따먹고 노닐던 노루도 이끌리고
노루 쫓던 수렵꾼도 향을 향해 달려오고
용천산 옥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들
강물 타고 내려오다 정자 앞에 머물고
투명한 연못 갯 갈아놓은 먹물처럼 탁해지면
연못에 놀던 곤충 동물 서글픈 울음소리
신선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듯
흘러간 먹물은 단절을 알려주네
그렇게 신선들의 구슬픈 노랫소리 끊겨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면

- 중략 -

이 학생은 선행 학습에서의 <면양정가>와 감성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떠올리면서 담양 풍류를 계절에 따라 표현했다. 이론과 모방가사 쓰기에 이어 면양정으로 답사를 갔고 현장에서 가사를 창작한 것이다. 담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송순의 <면양정가>와 면양정은 처음으로 접한 학생이다. 처음 완성한 가사 작품은 시나 시조처럼 짧고 단조로웠다. 그때 구절 사이사이에 이야기하듯 좀 더 자세히 써보자는 조언을 했다. 가사가 이야기 구조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면 학습자는 4음보 4음량 율격에 맞춰 긴 가사 작품을 어렵지 않게 완성한다.

봄이란 소재로 새로이 돌아나는 푸르른 새싹들과 만물이 꿈틀대는 모습을 보며 희망적인 풍류를 노래했다. 여름에는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가 어우러진 조화로운 향연에 맞춰 쇠똥구리가 춤추고, 개구리도 화음을 맞추고 독수리도 노랜 부르다며 극적인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주제2 난 좋아 난 싫어
게임하면 재미있어 스트레스 풀리니까
게임하면 시간 가는지 몰라 재미있어
쌓였던 고민들도 후루룩 날아가지
치킨은 바삭해서 그 맛이 일품이야
치킨은 다리가 역시나 맛있어
피자는 토핑이 맛있어서 너무 좋아
토픽 중엔 치즈가 너무 좋아
독수리의 날개는 품위 있어 멋있고
독수리의 날개는 퍼지면 너무 커
돌고래는 초승달 너무너무 신기하고
돌고래는 점프할 때 모양이 초승달
브로콜리는 뽀글뽀글 식감 좋고 맛있어
브로콜리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 맛있고
생선은 가시 많아 먹기도 힘들어
힘들어도 맛은 너무 좋아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루가 끝나고 게임할 수 있어 좋아
 홍어는 너무나 냄새나서 싫어해
 회는 역시 쫄깃쫄깃한 갑오징어
 요즘엔 미세먼지 너무 많아 기분 나빠
 금요일은 너무 좋고 월요일은 너무 싫어
 수요일은 빨리 끝나서 너무 좋아
 빨리 끝나면 친구와 놀 수 있어 좋아
 사이다는 스트롱 고양이는 너무 싫어
 콜라는 싫어 개구리는 징그러워
 강아지는 냄새나서 너무너무 싫어해
 매미는 한가로운 단잠 방해자

- 중략 -

친구는 역시나 인강이가 최고야
 인강이는 착해서 너무너무 좋아
 인강이는 나의 가장 오랜 친구야
 가방 청소 한번 하니 쓰레기가 가득가득
 수업은 역시나 미술 시간이 최고야
 미술쌤은 나랑 친하고 재미있고 착하니까
 시계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움직여
 시계는 나와 달라 너무너무 부지런해

- 중략 -

이 작품을 창작한 학생은 100행이 넘는 긴 내용의 가사를 완성했다. 물론 두
 어 번 고쳐 쓰기를 시도하였지만 학생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긴 가사 작
 품을 완성한다. 게임을 재미있어한다는 노랫말로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 게임
 통하여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고 쌓였던 고민도 다 날아 가버린다는 표현
 에서 또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어서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
 는 요일, 싫어하는 요일, 좋아하는 동물, 싫어하는 동물 등을 가사 율격에 맞춰
 써나간다.

이 학생은 친구와 학교생활을 싫어하지 않지만 딱딱한 교실이 싫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선생님이 재미있고 친절한 미술 시간을 좋아한다. 청소년기인 학생들에게 감성이 묻어나는 자신들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할 때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픈 이야기가 무엇인지 등등 각자 나름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도 파악할 수 있다. 가사 창작 수업이야말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게 해주는 심신 치유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완성한 가사를 랩 음악에 맞춰 노래로 불러보면서 작품에 담긴 감성 작용을 살필 수 있다. 그 작용이 가사를 감상하는 이들의 굳어버린 감성을 자극하여 또 하나의 창작 가사를 생산해낼 수 있다. 학습자들은 가사를 창작하고 노래하는 동안 모든 시름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성 작용에 따라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으며 뿌듯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최근 1·2년 동안 연구자가 가사를 창작해보기도 하고 한 편의 가사를 창작하는 과정을 강의하면서 체험한 깨달음의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학작품과 감성 커뮤니케이션 확장 논의에 있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문학작품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면앙정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노래한<면앙정가>의 전반부는 ‘물(物)의 관점’, 후반부는 ‘아(我)의 관점’에 비중을 두어 구조화되었다고 본 기본 논의에 더하여 ‘아(我)의 감성적 자각’을 살폈다. 이를 통하여 시인이 작품에 표출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성질의 상의개념인 시적 화자의 감성 발현을 살필 수 있었다.

다음은 문학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와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하여 작가의

감성을 느끼게 되는 점을 파악하였다. 시인의 감성 읽기가 끝나면 최근에 젊은 이들에게 유행하는 랩 음악에 맞추어 <면양정가>를 노래해본다. 가사를 감성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단계가 읊어보는 것이라고 할 때 노래로 불러보는 것이야말로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첫 단계라고 생각해서이다. 기존 가사 작품을 좋아하는 랩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불러보고 모방 가사를 써보는 작업이야말로 문학작품과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기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면양정가>를 활용한 모방 가사 창작 활동은 우리가 가사 문학작품과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 확장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 정책도 갈대처럼 쉽게 바뀌대는 바람에 학습자들이 몸살을 앓는 점을 생각해본다. 이렇듯 수없이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그에 따라 요동치는 교육 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고전에 대한 교육은 몇 십 년이 지나도 외우고 해석하며 그저 지식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융합교육을 부르짖고 있고 이미 학생들도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다. 보다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에서는 가사 문학 교육도 단순한 지식 전달 수준을 넘어 가사 창작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작한 가사를 랩 음악에 맞춰 노래하는 새로운 교육의 물꼬가 트였고 거기에 발맞춰 2019년도에는 ‘전국 청소년 가사 래퍼 대회’를 열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논의가 학교 현장에서도 청소년들의 감성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 실현에 의미 있는 작업이길 기대한다. 아울러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면앙집』

국립국어원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상·하), 두산동아, 1999, 136쪽, 5080쪽.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고시가연구』 제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64쪽.

조아라, 「강호가사 <면앙정가> 교육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18쪽.

조태성, 「감성의 발현과 그 방식, 파장 혹은 스펙트럼」, 『감성연구』 1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0, 37쪽.

백숙아, 「면앙정 송순의 한시 연구」, 순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5쪽.

최한선, 「가사문학 창작과 계승」, 『오늘의 가사문학』 제2호, 고요아침, 2014, 7쪽.

_____, 「가사란 무엇인가-면앙정가」, 『오늘의 가사문학』 제4호, 고요아침, 2015.

_____, 『고전 시가와 호남 한시의 미학』, 태학사, 2017, 335쪽.

_____, 「고등래퍼와 현대가사」, 『오늘의 가사문학』 제17호, 고요아침, 2018.

| Abstract |

The Practice of Gasa Writing through “Myeon-ang-jeong-ga” and Emotional Communication

Baek, Suk-ah

Committee of Gasa Literature writing and Studying in Korea, A
member of committee

This study examined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cation of Gasa through "Myeonangjeongong".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Myeonangjeongong" expressed by the sensual imagination of the poet, and based on this, aimed to discuss the communication process that motivates our emotions and leads to new creative ways.

Above all, this study found that "Myeonangjeongga", which sang a state of 'things-body unification' (物我一體), was structured with the emphasis on 'the view of things 物' in the first half and the 'body view of body 我' in the second half. That is to say, "Myeonangjeongong" sang the state of things-body unification, and the first half structured with the emphasis on the 'things 物 perspective', and the latter half was structured with a weight on the 'body 我 perspective'. Thus, it was possible to look at the emotional characteristic which is the upper concept of all the properties accompanied by the mental and physical activities of the human

being expressed in the work by the poet.

Next, this study grasped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interact with the author while listening to the literary works and read the emotions of the author through dialogues. This study explored the process of singing "Myeonangjeongong" to catch up with the poet's thoughts and become the poet's position and adapt to the rap music which is popular to young people recently. Given the most natural step of getting Gasa in touch with emotion is to give it a try to sing it once, it is thought that trying singing is the first step of emotional communication. It is said that the process of singing Gasa works that you make along to the rap music is to be a standard example of emotional communication. In this sense, this discussion seems to suggest that we use "Myeonangjeongong" to expand our communication between Gasa literature and the world.

Key words : Myeonangjeongga<倅仰亭歌>, emotion(感性), Communication, things-body unification (物我一致), rap, song.

